



추신수 빅리그 새역사 쓰는 중

1번 타자 내셔널 리그 최초
20홈런-100득점-100볼넷 달성

올 시즌 100볼넷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추신수와 팀 동료 조이 보토(118개), 마이크 트라웃(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100개) 등 메이저리그를 통틀어 세 명뿐이다. 이날까지 추신수는 21홈런, 101득점, 101볼넷을 쌓았다.

미국 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의 1번 타자 추신수(31)가 안타를 치지는 못했지만 시즌 100볼넷을 넘어서 내셔널리그 최초의 기록을 썼다.

추신수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라파크에서 계속된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방문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에 볼넷 두 개, 도루와 득점 하나씩을 얻었다.

전날 경기에서 시즌 50번째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치고 3득점해 득점 100개를 돌파한 추신수는 이날 안타는 없었지만 볼넷 2개로 올 시즌 볼넷을 101개로 늘렸다.

이로써 추신수는 1번 타자로서는 처음으로 내셔널리그에서 20홈런-100득점-100볼넷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종전까지는 아메리칸 리그에서만 네 차례 있었을 뿐이다.

여기에 추신수는 도루까지 하나 성공해 시즌 18번째를 기록했다.

이제 도루 2개만 보태면 20-20-100(홈런-도루-득점-볼넷)이라는 내셔널리그 리드오프 사상 첫 기록을 또 쓴다.

개인적으로는 통산 세 번째로 20-20 클럽에 가입하기도 한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89에서 0.288로 약간 떨어졌다. /연합뉴스

광주 FC 코칭스태프 구성 완료

수비수 마찰준 플레이 코치로 전환

브라질 출신 카를로스 피지컬 코치



〈마철준 코치〉 〈카를로스 코치〉

광주 FC가 남기일 감독대행 체제에 맞춘 코칭스태프 구성을 끝냈다.

광주는 16일 브라질 출신의 축구선수 전문 피지컬 코치 카를로스(30·Carlos Eduardo De Meireles Silva)를 영입했다. 또 수비수 마찰준을 플레이 코치로 전환하면서 남은 시즌에 대한 코칭 스태프 구성을 마무리했다.

브라질 주앙페소아 대학교에서 스포츠와 심리학을 전공한 카를로스는 근력·근육 증가·체중관리 과정에 대한 석사 과정을 밟고 맨탈 및 체력회복 중심 트레이닝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 피지컬 코치다.

2010~2013년까지 브라질 파라리바주 2부리그 보타포고 U20-22세와 프로팀 등에서 피지컬 코치를 담당했다.

10년 차 베테랑 수비수 마찰준은 플레이 코치로 뛰게 된다.

K리그 통산 196경기에 출전해 2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마찰준은 대인 마크 능력이 뛰어나며 측면 수비는 물론 중앙 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플레이 코치로 활약하며 선수층이 젊은 광주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석 연휴에도 스포츠 빅매치 계속

추석 연휴에도 스포츠는 계속된다. ‘국민 스포츠’ 프로야구와 유럽에서 뛰는 축구 해외 선수들이 찾아온다.

◇프로야구= 프로야구는 상위권 팀들의 맞대결로 뜨겁다. 추석 당일인 19일에는 2위 삼성과 3위 두산이 잠실에서 맞붙고 20일에는 ‘서울 라이벌’ LG(1위)와 두산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21일에는 삼성과 넥센(4위)이 목동에서 한판 대결을 벌인다.

1위 LG부터 4위 넥센까지 총총히 늘어난 순위 관두고 추석 연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홈런왕을 노리는 대포들의 경쟁도 연휴를 뜨겁게 달궜다. 박병호(넥센)가 홈런 29개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최형우(삼성)와 최정(SK)이 26개 홈런으로 추격중이다.

KIA는 17일 대전 원정에서 이어 18일 사직을 거친 뒤 19·20일 안방에서 넥센을 맞는다. 주말에는 잠실로 올라가 두산과 대결을 벌인다.

◇축구=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FC서울과 알 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가 18일 오후 7시30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프로축구도 주말에 경기가 펼쳐진다. 22일 포항에서는 1·2위 포항과 울산의 ‘빅매치’가 열린다. 전남은 22일 오후 3시 대전과 홈경기를 갖는다.

◇해외스포츠=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뛰는 손흥민은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상대한다.

18일 오전 3시45분(한국시간) 열리는 이 경기는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빅 클럽’ 가운데 하나인 맨유와 맞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에서 뛰는 류현진은 17일 오전 10시40분 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 경기 등판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다. 주말에는 잠실로 올라가 두산과 대결을

“기성용 선배처럼 EPL 스타 될래요”



순천 중앙초등학교 축구부 정한균 감독(왼쪽)과 김동훈 코치, 선수들이 내년 100회 우승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순천 중앙초는 기성용(선덜랜드)과 김영광(울산 현대) 등 많은 축구스타를 배출한 유소년 축구 명문학교다.

순천중앙초 英 런던서 열린 ‘유소년 월드컵’ 2013 다는 네이션컵 B조 우승

정한균 감독 창단과 함께 지도

30년간 국제대회 등 우승 98회

인성교육 바탕 축구명문교 육성



〈정한균 감독〉

양초는 지난 3월 칠십리 춘계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우승하며 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는 한·중·일·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4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4개팀을 1조로 편성해 경기를 진행했다. 이어 1차 리그 경기결과 각 조 1~2위는 A그룹, 각 조 3~4위는 B그룹으로 나눠 2차 리그를 펼쳤다.

정한균(55) 감독이 이끄는 순천 중앙초는 1차리그에서 브라질·스위스·캐나다와 함께 E조에 속했다. 첫 경기에서 캐나다와 겨뤄 1-1로 비겼고 두 번째 팀인 스위스에 1-2로, 세 번째 경기에서 브라질과 만나 0-1로 각각 패해 1무 2패를 기록해 3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순천 중앙초는 B그룹 2차 리그에서 모로코와 중국, 독일, 우루과이를 차례로 꺾으며 B그룹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모로코를 3-1로 꺾었고, 중국과 1-1로 비겨 승부차기 끝에 6-5로 이겼다. 독일과 붙은 세 번째 경기 역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 승부차기에서 3-1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남미 강팀인 우루과이와 겨룬 결승전은

‘축구성지’로 불리는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전반전에 박재현이 육현호(이상 6년)의 패스를 논스톱으로 슛해 득점으로 연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골을 막으며 1-1로 비겼다. 결국 승부차기 끝에 3-2로 누르고 우승의 감격을 만끽했다.

A조 우승은 승부차기에서 3-2로 브라질을 꺾은 프랑스가 차지했다. 이 대회에 그동안 한국팀은 3번 출전해 지난 2012년 포함 동초등학교가 A조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30년간 98회 우승급 들어올려=순천 중앙초 유소년 축구선수들은 그동안 많은 국내외 대회를 석권해 왔지만 이번 국제대회를 통해 전세계에서 모인 또래 선수들을 보며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미드필더 박태웅(6년)은 “남미 강팀을 1대 1 상황에서 강했다. 경기중 서로 칭찬해주고, 틀리면 슈팅하고, 코너킥도 바로 올리지 않고 패스해서 찬스를 만드는 등 배울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골키퍼 진선준(6년)은 “7개팀을 뛰었는데, 우루과이와의 결승전이 가장 힘들었다. 코너로 들어오는 슈팅 2개를 다이빙하며 선방했을 때 기분이 짜릿했다”며 “브라질 선수들의 공중볼 다루는 실력과 민첩성, 빠른 판단력이 돋보였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순천 중앙초 선수들은 이번 대

회에 출전하기 위해 영국으로 향하며 선배인 기성용(24·선덜랜드) 선수를 만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때마침 기성용이 스완지시티에서 선덜랜드로 이적하며 꿈을 날 수 없게 됐다. 기성용의 스완지 시티는 30년간 100회 우승을 기록하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면서 “선수들이 영국무대에서 뛰는 볼모텔 선배를 만나보고 싶어했는데 무산돼 많이 아쉬워했다”고 말했다.

기성용은 국내에 들어오면 교포를 방문해 후배들을 격려하고, 지난 2011년부터 훈련용품 지원하는 등 아낌없는 애정을 쏟고 있다. 1983년 12월부터 순천 중앙초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정 감독(한국 유소년 축구연맹 부회장)은 30년간 ▲국제대회 10회 ▲전국대회 19회 ▲도내대회 69회 등 모두 98차례의 우승기록을 일궈냈다.

정 감독은 “기본기 훈련과 함께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며 “시차 때문에 1차리그 경기 운영이 어려웠다. A그룹이 아닌 B그룹 우승에서 아쉽지만 내년에는 100회 우승기록을 채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성용은 국내에 들어오면 교포를 방문해 후배들을 격려하고, 지난 2011년부터 훈련용품 지원하는 등 아낌없는 애정을 쏟고 있다. 1983년 12월부터 순천 중앙초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정 감독(한국 유소년 축구연맹 부회장)은 30년간 ▲국제대회 10회 ▲전국대회 19회 ▲도내대회 69회 등 모두 98차례의 우승기록을 일궈냈다.

정 감독은 “기본기 훈련과 함께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며 “시차 때문에 1차리그 경기 운영이 어려웠다. A그룹이 아닌 B그룹 우승에서 아쉽지만 내년에는 100회 우승기록을 채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성용은 국내에 들어오면 교포를 방문해 후배들을 격려하고, 지난 2011년부터 훈련용품 지원하는 등 아낌없는 애정을 쏟고 있다. 1983년 12월부터 순천 중앙초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정 감독(한국 유소년 축구연맹 부회장)은 30년간 ▲국제대회 10회 ▲전국대회 19회 ▲도내대회 69회 등 모두 98차례의 우승기록을 일궈냈다.

정 감독은 “기본기 훈련과 함께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며 “시차 때문에 1차리그 경기 운영이 어려웠다. A그룹이 아닌 B그룹 우승에서 아쉽지만 내년에는 100회 우승기록을 채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성용은 국내에 들어오면 교포를 방문해 후배들을 격려하고, 지난 2011년부터 훈련용품 지원하는 등 아낌없는 애정을 쏟고 있다. 1983년 12월부터 순천 중앙초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정 감독(한국 유소년 축구연맹 부회장)은 30년간 ▲국제대회 10회 ▲전국대회 19회 ▲도내대회 69회 등 모두 98차례의 우승기록을 일궈냈다.

정 감독은 “기본기 훈련과 함께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며 “시차 때문에 1차리그 경기 운영이 어려웠다. A그룹이 아닌 B그룹 우승에서 아쉽지만 내년에는 100회 우승기록을 채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성용은 국내에 들어오면 교포를 방문해 후배들을 격려하고, 지난 2011년부터 훈련용품 지원하는 등 아낌없는 애정을 쏟고 있다. 1983년 12월부터 순천 중앙초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정 감독(한국 유소년 축구연맹 부회장)은 30년간 ▲국제대회 10회 ▲전국대회 19회 ▲도내대회 69회 등 모두 98차례의 우승기록을 일궈냈다.

정 감독은 “기본기 훈련과 함께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며 “시차 때문에 1차리그 경기 운영이 어려웠다. A그룹이 아닌 B그룹 우승에서 아쉽지만 내년에는 100회 우승기록을 채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성용은 국내에 들어오면 교포를 방문해 후배들을 격려하고, 지난 2011년부터 훈련용품 지원하는 등 아낌없는 애정을 쏟고 있다. 1983년 12월부터 순천 중앙초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정 감독(한국 유소년 축구연맹 부회장)은 30년간 ▲국제대회 10회 ▲전국대회 19회 ▲도내대회 69회 등 모두 98차례의 우승기록을 일궈냈다.

정 감독은 “기본기 훈련과 함께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며 “시차 때문에 1차리그 경기 운영이 어려웠다. A그룹이 아닌 B그룹 우승에서 아쉽지만 내년에는 100회 우승기록을 채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성용은 국내에 들어오면 교포를 방문해 후배들을 격려하고, 지난 2011년부터 훈련용품 지원하는 등 아낌없는 애정을 쏟고 있다. 1983년 12월부터 순천 중앙초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정 감독(한국 유소년 축구연맹 부회장)은 30년간 ▲국제대회 10회 ▲전국대회 19회 ▲도내대회 69회 등 모두 98차례의 우승기록을 일궈냈다.

정 감독은 “기본기 훈련과 함께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며 “시차 때문에 1차리그 경기 운영이 어려웠다. A그룹이 아닌 B그룹 우승에서 아쉽지만 내년에는 100회 우승기록을 채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성용은 국내에 들어오면 교포를 방문해 후배들을 격려하고, 지난 2011년부터 훈련용품 지원하는 등 아낌없는 애정을 쏟고 있다. 1983년 12월부터 순천 중앙초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정 감독(한국 유소년 축구연맹 부회장)은 30년간 ▲국제대회 10회 ▲전국대회 19회 ▲도내대회 69회 등 모두 98차례의 우승기록을 일궈냈다.

정 감독은 “기본기 훈련과 함께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며 “시차 때문에 1차리그 경기 운영이 어려웠다. A그룹이 아닌 B그룹 우승에서 아쉽지만 내년에는 100회 우승기록을 채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리디아 고 ‘메이저 퀸’ 다음 기회에

에비앙 챔피언십 아쉬운 준우승

“조만간 프로 데뷔… 지켜봐 달라”

박세리·유소연 공동 4위

무서운 10대 리디아 고(16)가 생애 첫 메이저 골프대회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레뱅의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장(파71·6428야드)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최종일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에 보기 2개를 묶어 1언더파 70타를 쳤다.

합계 8언더파 205타를 적어낸 리디아 고는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10언더파 203

타)보다 2타 뒤진 준우승을 차지했다.

페테르센은 올 시즌 세 번째이자 LPGA 투어 통산 13승을 거두며 상금 48만7500달러(약 5억3000만원)를 받았다. 메이저대회 우승은 2007년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이후 6년 만이다.

올해 메이저대회로 승격된 에비앙 챔피언십은 악천후로 경기 일정에 차질을 빚어 애초 4라운드에서 3라운드 대회로 축소됐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노렸던 박세리(36·KDB금융그룹)는 타수를 줄이지 못해 함께 5언더파 208타로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과 공동 4위를 차지했고, 최은정(23·볼빅)이 공동 6위의 성적을 거뒀다.

올 시즌 세 차례나 메이저대회를 제패했

던 박민비(25·KB금융그룹)는 최종일에 5타를 잃는 부진속에 공동 67위(8오버파 221타)로 대회를 마쳤다.

리디아 고는 “수잔과 좋은 경기를 펼쳐 즐거웠고 경기결과에 만족한다”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프로에 데뷔할 예정인데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대한 욕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박세리는 “남은 시즌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하겠다”고 답했다.

‘그랜드슬램’ 달성 여부로 관심이 쏠렸던 박민비는 1라운드에서 의외의 발타를 받은 것이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부담이 됐느냐는 질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며 말을 아꼈다.

리디아 고는 “수잔과 좋은 경기를 펼쳐 즐거웠고 경기결과에 만족한다”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프로에 데뷔할 예정인데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대한 욕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박세리는 “남은 시즌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하겠다”고 답했다.

